

# 이 력 서



이름	김선주	지원부문	웹디자인 (신입)
생년월일	1994년 04월 23일	병역	해당없음
이메일	s0120630@naver.com	핸드폰	010-9669-1584
주소	(우48511) 부산 남구 용소로19번길 62-10		
포트폴리오 주소	<a href="https://sunkey0423.github.io/KSJ/">https://sunkey0423.github.io/KSJ/</a>		

##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력사항	전공	졸업구분
2013.03 ~ 2018.02	부산 경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2010.03 ~ 2013.02	울산 함월고등학교	-	졸업

## 교육이수

기간	교육명	교육기관명
2021.02.25. ~ 2021.07.30 (5개월)	반응형 웹퍼블리싱&웹디자인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주요내용 : Adobe Photoshop/Illustrator/XD, Cafe24 (쇼핑몰), 웹표준기술 HTML/CSS, jQuery, 반응형기술	

## 사회활동/아르바이트

기간	기관명	담당업무	퇴사사유
2018.07 ~ 현재	투썸플레이스	음료제조, 청소, 케이크 베이커리제조, 계산, 스케줄관리 및 스태프교육	-
2018.07 ~ 2018.11	코고미식당	서빙, 손님응대, 청소, 주방보조, 계산	임시직
2018.11 ~ 2019.02	하이퍼로직	문서 데이터화 작업, 경리	계약만료
2016.09 ~ 2017.08	경성대학교 제1통합 행정실	문서정리 및 작업, 3개 단과대 행정보조 업무, 서류전달, 전화업무	계약만료
2015.05 ~ 2016.10	최기락슈트	'맞춤 정장 패턴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종료
2013.06 ~ 2013.08	엔젤리너스	음료제조, 청소, 케이크 베이커리제조, 계산	계약만료
2012.09 ~ 2013.02	올리브영	손님응대, 매장진열, 청소, 계산, 마감	계약만료

## 활동사항(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공모전, 수상경력 외)

기간	구분	기관명(활동명)	활동 내용 및 담당 업무
2010.03~2012.03	봉사활동	나린아띠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주1회 방문 봉사활동
2013.03~2018.02	연구실	HCI LAB	프로젝트 진행, 세미나발표, 총무 담당
2013.03~2014.02	동아리	독서토론회	같은 책 읽고 교수님과 학생끼리 토론 및 의견나누기. 발표
2013.03~2018.02	봉사활동	대학생활 봉사활동	벽화그리기, 농촌봉사활동, 부산항축제, 부산해맞이축제, 생명사랑밤길걷기, 브니엘학습관 학습멘토링, 부산국제 차어올림문화제, 헌혈 등

자격증/어학점수

자격증(점수)	발행처	취득일
웹디자인기능사 (필기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07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05

어학능력/OA 소프트웨어

선택	주요내용		
영어	회화: 중	작문 : 중	독해 : 중
문서작성	Excel, PowerPoint, MS Word 가능		

보유기술 및 능력

범 위	종 류	숙련도	가능 범위
웹디자인	Adobe Photoshop CS6	상	홈페이지 시안제작, 사진보정, 이미지편집, 포스터, 책 표지, 전단지, 배너, 아이콘 제작 등.
	Adobe Illustrator CS6	중	
	Adobe XD	중	모바일 & 웹 UI/UX 프로토타입 제작
	HTML/CSS	중상	웹표준/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jQuery	중	기존코드 적용하여 CSS수정 및 커스텀
	Cafe24 (쇼핑몰)	중	템플릿을 활용한 쇼핑몰 제작, 상품등록관리, 상품상세페이지, 팝업설정, 모바일쇼핑몰 설정, 혜택관리 등.
	Adobe Indesign	중	이미지 편집, 편집물 인쇄도련설정
문서작업	Microsoft Office PowerPoint	중상	기본적인 기능 활용, 기획서 작성, 애니메이션 활용
	Microsoft Office Word/한글	중	문서 작성 및 편집
	Microsoft Office Excel	중	워크시트 및 차트 기입
언어	영어	중	외국인과의 간단한 소통, 기본 문서 작성

# 자 기 소 개 서

<p><b>성장 과정</b></p>	<p>“나눔과 베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신조입니다. 이런 생활신조를 토대로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린아띠’ 라는 봉사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p> <p>3년간 250시간을 봉사의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용돈을 모아 작은 돈이지만 매달 만원을 주기적으로 아동 후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도움이었지만 어르신들은 매 순간에 감동하셨고, 항상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베품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대학교 시절 대외적으로 헌혈, 벽화그리기, 부산항축제, 초등생 학습지도, 부산해맞이축제, 부산국제 차어울림문화제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교내에서는 멘토링학습 봉사활동을 참여하여 후배들의 학교생활 및 적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수 멘토링 에세이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p>
<p><b>성격</b></p>	<p>대학교 1학년 때, ‘전액장학금’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패거리를 맞보았습니다. 문과생으로서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아서 선택 한 것이었고, 꿈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는 이론공부를 포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장학금”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 보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부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내 실험실에 들어가기를 신청하여 실험연구실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일원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은 교내 밀착형 그룹 세미나를 열어 전공 공부에 대해 선후배간에 질의응답을 하며 심화된 학습을 하고, 간단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였습니다. 실험연구실 조교를 통해 학습 멘토링 참여 및 학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p> <p>그 결과, 1학년 2학기 때 전공과목에서 A+이라는 우수한 결과와 목표한 전액장학금까지 거머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커다란 성취감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결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p>
<p><b>사회 생활 (활동 사항)</b></p>	<p>대학교 2학년 ‘맞춤 정장 패턴 자동화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하는 것이 필수였는데, 회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전달이 잘 못 되어서 수정을 여러번 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배들과 교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외부 업체와의 더 활발한 소통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시스템에 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책임감과 팀워크를 키워나갔습니다.</p> <p>웹디자인과 퍼블리셔교육을 이수하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UI/UX에 대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시안을 만들고 코딩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퍼소나를 만들어 사용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니즈를 파악하였으며, 경쟁사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이트나 어플의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장단점을 나열하여 프로젝트의 가닥을 하나씩 잡아나갔습니다. 저도 제가 제작한 웹 페이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발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p>
<p><b>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b></p>	<p>중학생 시절 블로그에 포토샵 작업물을 올리다가 어느 쇼핑몰에서 로고제작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땐 그저 하나의 취미였던 것이 흥미를 가지게 되어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웹디자인의 꿈까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꿈을 실현시켜 웹퍼블리싱 기술을 겸비한 웹디자인 전문가가 되려 합니다.</p> <p>웹사이트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시안을 제작해서 퍼블리싱으로 구현하는 프론트 전단계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웹사이트는 화면상에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주얼과 콘셉트의 표현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이거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화면을 설계하고 동작이 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고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p> <p>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웹디자인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자기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p>